



NO_2176

하늘 마음



2025년 2월 16일

연중 제6주일



지오토의 <오상을 받는 성 프란치스코>



입당송

하느님, 이 몸 보호할 반석 되시고,
저를 구원할 성채 되소서.
당신은 저의 바위, 저의 성채이시니,
당신 이름 위하여 저를 이끌어 주소서.

제1독서 예레 17,5-8

화답송

- ◎ 행복하여라, 주님을 신뢰하는 사람!
- 행복하여라! 악인의 뜻에 따라 걷지 않는 사람,
죄인의 길에 들어서지 않으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사람,
오히려 주님의 가르침을 좋아하고,
밤낮으로 그 가르침을 되새기는 사람. ◎
-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 같아,
제때에 열매 맺고, 잎이 아니 시들어,
하는 일마다 모두 잘되리라. ◎

- 악인은 그렇지 않으니,
바람에 흩날리는 검불 같아라.
의인의 길은 주님이 아시고,
악인의 길은 멸망에 이르리라. ◎

제2독서 1코린 15,12.16-20

복음환호송

- ◎ 알렐루야.
- 주님이 말씀하신다.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보라, 너희가 하늘에서 받을 상이 크다. ◎

복음 루카 6,17.20-26

영성체송

그들은 실컷 먹고 배불렀네.
주님이 그들의 바람을 채워 주셨네.
그들의 바람을 저버리지 않으셨네.

즐거움에 행동하고, 절제하지 않는 사욕을 극복함

그리스도교의 가장 대표적인 고전 <준주성범>은

하느님 곁에 항상 머무르며 그 분의 마음에 드는 사람이 되고자 하는 사람들을 위한 책임입니다.
우리 친구들도 하느님을 본받아 살아가는 삶이란 무엇인지 아래 말씀에 귀기울여 보세요.
어느새 우리 곁에 가까이 계시는 하느님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1

무슨 말이든지 다 믿을 것도 아니고, 마음속에서 무슨 충동이 생겼다고 즉시 그대로 할 것도 아닙니다. 하느님의 뜻을 생각하여 매사를 주의 깊게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는 남을 착하다고 하기보다 그르다고 믿고 말하기가 일쑤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연약합니다. 그러나 완덕¹⁾에 이른 사람은 남의 말을 험사리 믿지 않는 데, 그는 사람들이 연약하여 나쁜 쪽으로 잘 기울어지고, 말실수도 하기 쉽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2

무슨 일을 하든지 조금씩 굴지 않고, 자기의 주장만을 고집하여 내세우지 않는 것은 큰 지혜입니다. 다른 이의 말을 분별없이 믿지 않고, 들은 말이나 자기가 믿는 것을 즉시 다른 사람에게 옮기지 않는 것도 큰 지혜입니다. 지혜롭고 또 양심이 바른 사람에게 가서 가르침을 청하십시오. 여러분의 생각을 고집하기보다는, 여러분보다 더 훌륭한 사람에게 가서 배우도록 힘쓰십시오. 착하게 살아야 하느님의 뜻에 맞는 지혜로운 사람이 될 것이며, 좋은 경험을 많이 하게 될 것입니다. 사람이 스스로 자기를 낮추어 생각할수록, 또 하느님께 더 잘 순종할수록 모든 일에서 지혜로워질 것이며 평화롭게 살 것입니다.



3

사람은 너무 많은 것을 탐할 때 불안함을 느낍니다. 교만한 사람과 인색한 사람은 한 순간도 평안히 지낼 수가 없습니다. 마음으로 가난하고 겸손한 사람은 평화롭게 삽니다. 자신에 대하여 온전하게 족지 않은 사람은 머지않아 시련을 당하며, 사소하고 하찮은 일에도 걸려 넘어집니다. 마음이 약하여 쾌락에 기울어진 사람은 세속의 모든 욕망을 끊어 버리는 것을 대단히 어려워합니다. 그런 사람은 세속적 쾌락이 사라지면 슬퍼하고, 누가 그를 반대하면 쉽게 분노합니다.

1) 완덕(完德): 그리스도를 그 완성과 목표로 바라보면서 이웃에게도 애덕을 실천하는 것

그러나 그 욕망을 충족시키면 즉시 양심이 그를 보채어 괴롭힙니다. 마음의 평화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개인의 욕심을 따랐기 때문입니다. 마음의 참된 평화는 욕심을 극복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것이지, 결코 그 욕심을 채우는 것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평화는 욕신에 사로잡힌 사람의 마음에 있는 것이 아니고, 바깥일에만 몰두하는 사람의 마음에 있는 것도 아니며, 오직 열심히 영적 생활을 하는 사람의 마음에만 있는 것입니다.



이 글은 《준주성범》(©윤을수 옮김, 가톨릭출판사, 1955, 2021)에서 발췌한 내용을 재구성한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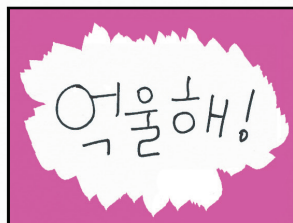
생각해보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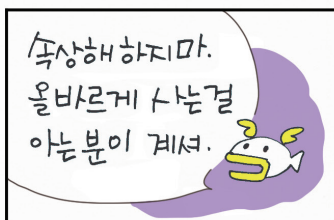
1. 지혜로움이란 무엇을 의미할까요? 지혜롭게 살기 위한 나만의 다짐을 세워보세요.
2. 내가 불안함을 느끼는 때는 언제인가요?
3. 마음의 평화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나의 영적 생활을 돌아보며 생각해 보세요.



날으는 CYA

엄현아 안젤라 | zzz-h@hanmail.net





기도, 하느님과 나누는 친밀한 대화



서울대교구 대신학교

황병철 대건안드레아 신부

하느님 친구들은 ‘기도’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기도하면 마음이 평안하고 힘을 얻나요, 아니면 어렵고 부담스러운 시간처럼 느껴지나요?



<교황님의 기도 - 출처 cpbc>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많은 메시지들의 중심에는 ‘기도’가 늘 자리하고 있어요. 그분은 기도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기도는 그저 경건한 관행이 아니라 영혼의 숨결과 같습니다. (...) 기도는 하느님과 나누는 진정한 대화이자 ‘하느님과 얼굴을 마주 보는 것’이고, 경청과 응답의 시간이며, 주님의 뜻과 이끄심에 자신을 열어두는 자리입니다.”¹⁾

기도는 우리에게 숨을 불어넣어 주시고 살게 하시는 분, 하느님과의 참다운 만남이며 친밀한 대화입니다. 나와 하느님이 친한 친구처럼 만나 편안하게 대화를 나눈다고 상상해 보세요. 마음이 정말 잘 맞는 친구나 가족 또는 나를 정말로 잘 이해하는 사람과 함께한다면 그 시간은 참 편안하고 행복할 거예요. 서로 존중하고 대화가 잘 통하는 이런 인격적인 관계가 바로 하느님께서 우리와 맺길 바라시는 관계입니다. 하느님께서 늘 우리 곁에 계시면서 우리가 마음을 열고 그분과 대화를 나누기를 바라세요. 그러나 결코 강요하지는 않으시지요. 그래서 아무리 하느님 쪽에서 나와 대화를 나누고 싶어도 내가 마음을 닫아버리면, 인격적 관계(서로의 자유와 마음을 존중하는 관계)에서는 소통이 어렵습니다.

1) “저희에게 기도하는 것을 가르쳐 주십시오 (2025년 희년을 준비하며 기도의 해를 살아가기), 20쪽 참조

내 마음을 온전히 나눌 수 있는 분이 계신다는 것은 얼마나 든든한 일일까요? 오늘 하루 내 기분이 어땠는지, 사람들과 만나면서 느꼈던 감정이 무엇이었는지, 감사하고 힘들었던 일들은 무엇이었는지, 내가 지금 바라는 바는 무엇인지 등 솔직하게 말씀드리는데도 기도합니다. 내 마음을 진솔하게 말씀드리고 또 그분께서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시지도 들어보는 거예요. 그러려면 우선 침묵하는 시간이 필요해요. 너무 분주하거나 소란스러운 소리 속에서는 그분의 목소리를 제대로 들을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놀랍게도 그분과 대화하면 할수록 나의 진짜 모습도 발견할 수 있게 되는데요. 왜냐하면 나와 대화하고 관계를 맺는 다른 이들은 나의 내면을 비춰주는 거울이 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거울이 깨끗하고 투명할수록 내 얼굴이 더 잘 보인다면, 가장 깨끗한 거울이신 하느님과 대화하고 그분께 비춰볼 때 나의 참된 모습이 더욱 잘 보이지 않을까요?



이처럼 기도란, **나를 누구보다 잘 아시고 존중해 주시는 친구 하느님과 나누는 친밀한 대화**입니다. 내 마음을 편히 나눌 수 있는 분과 대화하고, 이를 통해 내 인격적 성숙에도 도움을 받으니 참 좋지 않나요? 그럼, 어떻게 친밀한 대화(기도)들을 나눌 수 있는지, 다음 시간에 기도의 종류에 관해 이야기해 볼게요.

**하늘마음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하고
카톡으로 편하게 하늘마음 받아보세요!**



카카오톡 메인 - 우측 상단 돋보기로 검색 - '하늘마음' 검색 - 친구추가하기

◀ 왼쪽 QR코드 스캔하고 하늘마음 플러스친구 바로 추가하세요!

복음자리

2025년 2월 16일 | 연중 제6주일
(루카 6,17.20-26)

행복하여라, 가난한 사람들! 불행하여라, 너희 부유한 사람들! (루카 6,20,24)

새겨보기

오늘의 복음은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내려오셔서 군중들에게 가르치는 장면입니다. '행복 선언'과 '불행 선언'을 통해 하느님 나라의 가치관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하느님 나라의 우선 순위는 세상에서 억눌리고 고통 받는 이들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우리가 가난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느님을 의지할 때 참된 행복을 찾을 수 있음을 알려줍니다.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에게 행복을 약속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아
우리는 이웃들에게 어떤 방법으로 사랑을 실천할 수 있을까요?**

 **STEP 1.** 오늘 복음 내용이 뜻하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STEP 2.** 내 삶을 오늘 복음에 비추어 생활 속 이야기를 써보아요.

 **STEP 3.** 주님께 바치는 나의 기도나 구체적인 실천 사항을 적어보아요.

